B39

생체신이식에서의 술전 24시간 공여자 특이 수혈

메리놀병원 신장내과
정선동, 김대영, 김경원, 공진민

장기이식시 면역치료의 목표는 비특이적 면역억제가 아닌 공여자 특이 면역관능의 획득으로 보인다. 공여자 특이 수혈(DST)는 공여자 특이 면역관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년전까지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었으나 수혈을 받지 않은 환자들의 이식신 생존율의 향상으로 인한 수혈효과의 감소와 DST로 인한 감작, 수혈시 동시 투여되는 면역억제제의 부작용 및 비용, DST로 인한 이식수술의 지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소수의 병원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술전 24시간 DST(-24h DST)는 이상에서 열거한 DST의 불리한 점이 없는 한편 몇몇 동물 및 임상연구에서 이식시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공여자 특이 관능을 유도함이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1991년부터 HLA identical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신자에 이식 5주전부터 공여자의 혈액을 수혈하는 DST(-5W DST)를 시행하였는데 DST를 받은 일부 다산부에서 수혈후 감작이 발생함을 관찰하고 감작율을 줄이기 위해 1994년부터 4회이상 임산부와 재이식환자에게는 -24h DST를 주고 있으며 또한 HLA identical에게도 -24h DST를 시행하고 있다. 1994년 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32명의 환자에게 술전 24시간에 공여자의 신선 전혈 100~200cc를 수혈하였으며 이들 환자는 HLA identical 5예, 다산부 23예, 재이식 2예, 기타 2예이었고 이들중 혈연간 이식이 15예, 비혈연간 이식이 17예이었다. 남녀비 7:25, 평균연령 40세였고 당뇨로 인한 ESRD가 1예였다. 면역억제제는 PD 및 Cyclosporin을 사용하였고 이식 3일전부터 투여하였다. 급성거부반응은 11명(34%)의 환자에서 1회이상 발생하였는데 이들 거부반응은 이식 초기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초회거부 11예중 8예가 술후 3일이내에 발생하였고, 전예가 스테로이드 충격요법, OKT3 또는 혈장교환등으로 회복되었다. 평균 추적기간 18개월(1-37)로 면역학적 이식신 손실은 없었으며 2명의 환자가 간부전 및 패혈증으로 각각 사망하였고 나머지 환자는 안정된 신기능을 보이고 있다.

-24h DST는 수혈후 감작등 전통적인 DST에 수반되는 불리한 점이 없는 한편 공여자 특이 관능을 유도하여 이식신 생존율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술로 보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한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B40

신이식 생검의 병리학적 분석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내과학 교실, 외과학 교실***
박문향*, 강경원, 박찬현, 강종명, 박한철, 곽진영**

신장이식후 시행되는 신생검은 대부분 이식신 기능부전과 급성 이식거부를 알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간혹 약물의 독성이나 단백뇨 및 혈뇨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저자들은 1985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한양대학병원 조직병리과에 의뢰된 신생검중 이식신에서 시행된 침생검이나 신절제 표본의 진단을 분석하였다. 100명의 환자에서 얻어진 생검중 이식 거부에 의한 병변이 가장 많았고 이중 급성 세포성 이식거부로 진단된 예(52)가 가장 흔하였고, 그 이외 초급성 거부(7), 급성 혈관성 거부(6), 급성 세뇨관괴사(6), 경색(5)등의 순이었다. 이식후 발생한 사구체의 병소가 33예에서 관찰되었는데 이중 재발된 것으로 생각되는 IgA 신병증이 13예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당뇨병성 사구체경화증이 2예였으며, 이식신 사구체병증 5예, 새로 발생한 막성 신병증 5예가 있었고, 그 외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3예, 혈관간부증식성 사구체신염 3예, 미세신병증 1예, Henoch-Schonlein 신병증 1예였다. 이런 사구체병변은 이식거부병변과 흔히 복합되어 나타났다. cyclosporine 독성은 7예에서 관찰되었다. IgA 신병증은 신이식후 평균 2.8년(8개월-8년)후에 진단되었고 대부분 단백뇨(2+-3+)와 혈뇨가 관찰되었다. 이식신사구체병증도 신이식후 평균 2.8년(1-5년)후에 진단되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재발된 사구체신염의 분포는 서구의 보고와 다소차이가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사구체질환의 빈도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다양한 병리학적소견으로 보아 신이식환자의 장기적 추적시 신생검의 활용이 감별진단에 중요하리라 생각된다.